

接續副詞 研究(I)

-‘그러나, 그렇지만, 그런데’를 中心으로-

金 美 先

(江原大 講師)

차 례

1. 序 論	3.3 ‘그렇지만’의 意味
2. 形態分析	3.4 ‘그런데’의 意味
3. 意味分析	3.5 ‘그러나, 그렇지만, 그런데’의 意味比較
3.1 ‘對照’와 ‘讓步’의 概念規定	
3.2 ‘그러나’의 意味	4. 結 論

1. 序 論

이 글은 接續副詞에 대한 研究의 일환으로, 文接續에서 逆接機能을 하는 接續副詞을 추출하여 그 形態의 特性과 文脈의 意味를 把握하는 데 目的이 있다.

文의 接續類型에서 ‘逆接’이란 先行文과 後行文의 意味가 서로 反對되거나 一致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 國語에서는 다음과 같은 接續副詞을 들 수 있다.

- (1) ㄱ. 철수는 학교에 갔다. 그러나 영화는 가지 않았다.
- ㄴ. 철수는 학교에 갔다. 그렇지만 영화는 가지 않았다.
- ㄷ. 철수는 학교에 갔다. 그런데 영화는 가지 않았다.

위의 예는 모두 先行文의 主語와 後行文의 主語가 서로 다르고, 敍述語가 反對의 意味를 가짐으로써 對立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그러나, 그렇지만, 그런데' 등은 '對立關係 接續副詞'나 '對照關係 接續副詞'의 하나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이들 接續副詞는 그 쓰임이 완전히 일치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對立'이나 '對照'의 意味關係로 한데 묶여 있던 接續副詞 '그러나, 그렇지만, 그런데'의 個別意味 把握에 焦點을 두고, 그 意味機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接續副詞의 意味關係를 考察하기 위해서는 實際 談話에 쓰인 예를 중심으로, 그 文脈의 意味를 把握해야 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口語體 資料로 '생방송 심야토론'(1996년 5월 18일 방영분)을 錄音·轉寫하여 分析하였고, 文語體 資料로 短篇小說集 '오늘의 소설'(현암사, 1995년 하반기·1996년 상반기)과 新聞 '中央日報'(1996년 3월 1일자~4월 30일자)를 分析하였다

2. 形態分析

國語의 接續副詞는 先行文의 내용을 後行文에 意味上으로 連結시켜 주면서 文章 全體를 修飾하는 機能을 한다. 이러한 接續副詞는 '그러하다'의 活用形이 굳어져 派生된 단어로, 이 글에서 研究對象으로 삼고 있는 接續副詞는 다음과 같이 形態素 分析을 할 수 있다.

- (2) ㄱ. 그러나 : 그러 + 하나 → 그러하나 → ┌ 그러나
└ 하나
- ㄴ. 그렇지만 : 그러 + 하지만 → 그러하지만 → ┌ 그렇지만
└ 하지만
- ㄷ. 그런데 : 그러 + 한데 → 그러한데 → ┌ 그런데
└ 한데2)

-
- 1) '형은 키가 크다. 그리고 동생은 키가 작다.'라는 文章에서 '그리고'가 '對立'의 의미를 지닌다는 견해도 있다. <장정줄(1983)참조> 그러나 이것은 '나열'의 의미에서 파생된 것이지 본래적인 의미라고 볼 수 없다.
- 2) '그러나'와 '하나', '그렇지만'과 '하지만', '그런데'와 '한데'의 의미가 동일한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기로 하고, 이 글에서는 '그렇지만'과 '하지만'의 의미를 변별하지 않고 다루고자 한다.

위의 분석을 볼 때, (2, ㄴ)의 경우에만 ‘하’가 脫落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서정수(1996:1179)에서는 ‘그렇지만’에 대해 ‘그러지만’이나 ‘하지만’과 같은 形態로 쓰이나, 前者는 標準語로 인정되지 않으며, 後者は 口語에서 더러 쓰이기는 하나 앞의 대응형이 임의 탈락된 형태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러나’는 ‘그러하나’, ‘그렇지만’은 ‘그러하지만’에서 ‘하’가 줄어진 꼴이라고 주장하였다. 신현숙(1989:433)에서는 ‘그러나’와 比較하여, ‘그러나’는 語彙化 過程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語彙化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라 하였다.³⁾ 그러나 ‘그렇지만’보다는 오히려 ‘하지만’이 더 자주 쓰이는 言語現實에서 아직도 語彙化의 과정에 있다고 하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결코, 절단코, 맹세코’ 등이 ‘決하다, 決斷하다, 맹세하다’라는 動詞에서 온 말이지만 이것이 現在副詞로 쓰이고 있는 것도 ‘하’가 줄어 敘述性을 喪失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파악해야 한다. ‘그러하다’의 活用形에서 굳어진 다른 接續副詞처럼 ‘그렇지만’도 ‘하’가 縮約되어 敘述性을 잃고 語彙化한 것이다.

한편, ‘하지만’은 ‘그러-’가 省略된 形態로, 口語體뿐만 아니라 文語體에서도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⁴⁾ 강상호(1989:274)에서는 ‘입말체문장에서 접속어로 흔히 쓰이는 이음부사’로 ‘한데, 헌데, 하지만, 허나, 하기는, 하긴, 하기가, 그럼’ 등을 들고 있다.

3. 意味分析

3.1 ‘對照’와 ‘讓步’의 概念規定

接續副詞 ‘그러나, 그렇지만, 그런데’에 대한 여러 學者들의 論議를 살펴보면 약간씩 見解를 달리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최현배(1965:603)에서는 接續副詞를 意味關係에 따라 ‘별립(羅列)’과 ‘매함(拘束)’과 ‘안매함(不拘束)’으로 나누고, ‘그러(하)나’와 ‘그렇지마는’을 ‘안매

3) 이 문제는 連結語尾 ‘-지만’과 함께 通時的 考察을 통해서만이 규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4) 정렬모(1946:95-96)에서는 ‘하니까, 하지만, 하더라도’를 ‘寄生形式動詞’라 하여 대동사인 ‘그러하니까’와 구분하고 있다. 즉 ‘하니까’를 ‘그러하니까’의 준말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힘'에 넣고 있다. '안매힘'이란 '그 앞에 말한 바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와 판판의 결과와 생기는 것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김민수(1983:129)에서는 竝立接續詞로, '대립'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고, 서정수(1996:1178)에서도 '대립 관계'의 '문장 연결 부사어'라고 하였다. '그러나'와 '그렇지만'을 '일반적으로 서로 대조되는 두 문장을 잇는 대등 접속어'로 처리한 것이다.

한편, 연결어미 '-으나'와 '-지만'에 대해 살펴보면, 최현배(1985:304-5)에서는 이 두 語尾를 '참일 놓는꼴(事實放任形)'이라 하여 '참일(事實)임을 인정하되, 그것이 그 다음의 말의 내용이 들어남에는 상관없이 없음을 보이는 꼴'이라 하였다.

허용(1992:563)에서도 '-으나'를 '앞의 사실을 긍정하기는 하나 뒤에 부정적인 사실을 함축하는 이음법'인 '불구법' 또는 '양보법'에 넣고 있다.

김승곤(1981:21-22)에서는 '-으나'와 '-지만'을 모두 '반대의 어미'로 규정하되, '-으나'는 단순한 반대의 어미인데 반하여, '-지만'은 조건부 반대의 어미라고 주장하였다.

이기동(1977:136)에서는 대조 및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 語尾로 '-지만, -는데, -으나, -어도' 등을 들고 있는데, 가상의 조건이 포함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지만, -으나, -는데'와 '-도, -더라도, -그러라도'를 나누고 있다. 즉 '-지만, -으나, -는데'는 대조·양보의 뜻을 나타내지만, 가상의 조건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後者가 구분이 된다는 것이다.

윤평현(1992:89)에서는 대립 관계 접속어미 '-나, -아도, -지만' 등과 양보 관계 접속어미 '-아도 -더라도, -그러라도, -나들, -그러언정, -그러망정' 등은 그 의미 기능과 특성에 있어서 양자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선행절과 후행절이 표면적인 내용상 맞선다고 보면 '대립'으로, 후행절 내용이 선행절을 통해서 예상할 수 있는 것과 반대되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보면 '양보'(또는 '불구')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連結語尾 '-으나, -지만'과 接續副詞 '그러나, 그렇지만'을 '對立', '對照', '反對'나 '讓步'의 의미로 規定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對立', '對照'나 '讓步'라는 用語의 概念規定이나 定義를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앞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對立'이란 '前述한 내용에 대해 後行文에서 반대의 사실을 陳述하는 것'이고, '對照'는 '앞 文章과 뒤 文章의 意味 內容이 反對되거나 矛盾되어 서로 對比되는 것', '讓步'⁵⁾는 '前述한 내용에 대해 일단은 認定해 주고 後行文에서 그 反

對의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앞의 內容에 '맞선다'는 意味로 볼 때, '對立'이라는 用語가 가장 포괄적으로 쓰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그러나, 그렇지만, 그런데'의 意味關係를 '對立'이라고 規定하고, 그 對立關係에서 '單純 對比'의 意味가 포함되어 있으면 '對照', '條件 對比'의 意味가 포함되어 있으면 '讓步'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제까지는 '그러나, 그렇지만, 그런데'를 하나의 意味關係에 포함시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다시 말하면 '對立關係 接續副詞'나 '對照關係 接續副詞'라고 하여 하나의 意味機能만 지닌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 接續副詞들은 文脈에 따라 그 意味가 달라진다. 다음의 예는 '對照'로도 해석될 수 있고, '讓步'로도 해석될 수 있는 文章이다.

(3) ㄱ. 위대한 왕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착한 군주는 상상하기 힘들다.(중앙일보 3월 28일자)

ㄴ. 교사 한두 사람의 눈 밖에 난다 해서 학교에 다니기가 힘들어지는 법은 없었다. 그러나 수미 눈 밖에 났다가는 학교에 다니기가 힘들었다. ('深海에서')

ㄷ. 지하철 공사측은 예방책을 이미 세워놓았다고 말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시민들로서는 지하철 공사측의 그런 말이 미덥지만은 않다. (중앙일보 3월 14일자)

ㄹ. 남자는 한 주먹을 불끈 쥐어 허공으로 쳐들었다. 그러나, 그는 웬일인지 그 주먹으로 여자의 얼굴을 내리치지 못했다.('深海에서')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先行文과 後行文의 위치를 바꿈으로 해서 이 文章이 '對照'의 관계로 연결되었는지 '讓步'의 관계로 연결되었는지 알 수 있다.⁶⁾

(3) 'ㄱ. 착한 군주는 상상하기 힘들다. 그러나 위대한 왕은 있을 수 있다.

5) Concenssive: A conjunction or clause expressing a state or condition in spite of which the truth or validity of the main clause holds good, e.g. We went out, although we knew that it would rain. (Hartmann and Stork 'Dictionary of Language and Linguistics')

6) 김영희(1988)에서는 동위 접속문은 '선·후행절의 자리 바꾸기, 선행절 옮기기, 接續副詞 되풀이, 내포 접속문 구성, 재귀 대명사 및 후행절 주제어 등과 관련된 고유 통사 특성'에 의해 검증된다고 하였다.

- ㄴ. 수미 눈 밖에 났다가는 학교에 다니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교사 한두 사람의 눈 밖에 난다 해서 학교에 다니기가 힘들어지는 법은 없었다.
- ㄷ. 시민들로서는 지하철 공사측의 그런 말이 미덥지만은 않다. 그러나 지하철 공사 측은 예방책을 이미 세워놓았다고 말하고 있기도 하다.
- ㄹ. 그는 웬일인지 그 주먹으로 여자의 얼굴을 내리치지 못했다. 그러나 남자는 한 주먹을 붙든 쥐어 허공으로 쳐들었다.

(3)의 (ㄱ, ㄴ)은 文章을 倒置해도 그 意味上의 變化 없이 자연스럽게 連結되는 데 비해, (ㄷ, ㄹ)의 예는 文章의 先後가 바뀌에 따라 文章이 전체적으로 부자연스럽게 됨을 알 수 있다. 즉, ‘그러나’와 ‘그렇지만’이 ‘對照’의 뜻을 나타낼 때에는 두 文章이 對等하게 연결되지만, ‘讓步’의 뜻일 경우에는 從屬的인 관계로 연결된다. 따라서 ‘對照’의 의미일 때는 先行文과 後行文 모두에 焦點이 맞춰지고, ‘讓步’의 의미일 때는 後行文에만 焦點을 두게 된다.

‘讓步’의 뜻을 나타낼 때에 ‘그러나’와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더라도’(though)란 意味로 代置시킬 수 있다.

- (4) ㄱ. 지하철 상품 벽보 광고의 한국식 영어 나열은 가관이다. 그러나 그런 광고의 표현 자유는 억지로 규제할 수 없다. (중앙일보 4월 11일자)

ㄴ. “자살을 생각했었다는 것도 이해는 돼. 하지만 역시 터무니 없는 생각이야.” (『深海에서』)

- (4) ㄱ. 지하철 상품 벽보 광고의 한국식 영어 나열은 가관이다. 그렇더라도 그런 광고의 표현 자유는 억지로 규제할 수 없다.

ㄴ. “자살을 생각했었다는 것도 이해는 돼. 그렇더라도 역시 터무니 없는 생각이야.”

國語의 接續副詞 ‘그러나, 그렇지만, 그런데’와 對譯될 수 있는 單語로, 영어에서는 接續詞 ‘but’를 들 수 있다. Lakoff.R.(1978:159)는 ‘but’의 機能을 ‘意味의 맞섬’(semantic opposition)과 ‘期待의 어긋남’(denial of expectation)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⁷⁾

- (5) ㄱ. John is tall but Bill is short.

7) 김승곤(1981:21-22)에서의 ‘단순한 반대’와 ‘조건부 반대’라는 개념과 연관지어 볼 수 있겠다.

- ㄴ. John hates ice cream, but I like it.
- (6) ㄱ. John is tall but he is no good at basketball.
- ㄴ. John hates ice cream, but so do I.

例文 (5)의 (ㄱ)과 (ㄴ)은 모두 接續詞 'but'으로 연결된 두 개의 文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5, ㄱ)에는 'tall'과 'short'가, (5, ㄴ)에는 'hates'와 'like'가 쓰여 意味上 對照되어 있다. 그러나 예문 (6)의 경우는 서로 對照를 이루는 單語를 찾아볼 수가 없다. Lakoff, R.에 따르면, 例文 (6)에 쓰인 'but'의 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假定이 필요하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예문 (6)과 같은 문장 속에는 假定이 內包해 있다는 것이다. (6, ㄱ)의 경우, 일반적으로 키가 크면 농구를 잘한다는 가정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대 심리와는 반대가 되기 때문에 'but'이 쓰였다. (6, ㄴ)에서 'but'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기 때문에, 존이 아이스크림을 싫어하더라도, 나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리라는 豫想과는 달리 나도 아이스크림을 싫어한다고 하여, 기대에 어긋남을 表示하기 위하여 쓰였다.

接續詞 'but'의 意味 機能을 여러 가지로 設定할 수 있는 것처럼, 국어의 接續副詞 '그러나, 그렇지만, 그런데'의 意味도 文脈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그러나, 그렇지만, 그런데'가 쓰인 用例를 찾아 그 個別意味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3.2 '그러나'의 意味

- (7) ㄱ. 사춘기 소년에게는, 또래 친구들로부터 제 누이를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사춘기 청소년들에게는 제 동아리에 전주어 제 누이와 동생을 흑평하는 경향도 있다. ('나비 넥타이')
- ㄴ. 고려시대엔 다비(茶毘)라고 부른 화장이 크게 성했다. 그러나 조선조에 들어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따라 매장이 관례화하면서 화장은 사라졌다. (중앙일보 4월 7일자)
- ㄷ. 집 마당에 잔디는 아직 땅위로 새싹을 틔우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잔디를 망쳐 놓는 콜로버는 냉이, 쑥, 쑥바귀, 꽃다지, 강아지풀, 민들레 등과 함께 이미 초록빛 잎이 돌아났다. (중앙일보 4월 18일자)
- ㄹ. 삼십축 백열 전구의 불빛을 받은 자흔의 눈두덩에는 푸르스름한 병색이 깃들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동자는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여수의 사랑')

- (8) ㄱ. 조순(趙淳) 시장이 취임한지도 그리저럭 1년이 가까워 오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교통에 어떤 변화도 감지되고 있지 않다.

(중앙일보 4월 5일자)

- ㄴ. 신도시를 만들 때 필수 기반시설이 상하수도, 전기, 도로일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야 하는 게 학교시설이다. (중앙일보 3월 6일자)
- ㄷ. 현 정부의 임기는 2년이 채 안 남았다. 그러나 개혁작업을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중앙일보 4월 26일자)
- ㄹ. 여당이 안정의식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선거 후 며칠 지나지도 않아 다른 정당소속 당선자를 빼가는 것은 정치 도의상 문제가 있다. (중앙일보 4월 30일자)

例文 (7, ㄱ)은 '또한, 한편으로는'이라는 의미로 쓰여 '添加'라고 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보호'와 '흑평'이라는 상반되는 語彙가 쓰여 '對照'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例文 (7)의 (ㄴ, ㄷ, ㄹ)에서는 '意外'의 뜻을 담고 있다. (7, ㄴ)에서는 '고려시대에 화장이 성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도 그럴 것'이라는 기대에 어긋난 의외의 사실에 대해, (7, ㄷ)에서는 '잔디가 새싹을 틔우지 않아서 다른 풀들도 그럴 것'이라는 기대에 어긋났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 (7, ㄹ)에서는 '병색이 깃들어 눈동자도 흐릿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있어 '意外'의 의미로 볼 수 있다. (7, ㄹ)과 같은 경우는 '양보'로도 해석할 수 있으나, 文章內의 성분이 서로 대비되고 있어 '대조의 意味가 더 강하다고 본다. (7)의 예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要素들이 서로 대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7)' ㄱ. 친구들로부터 제 누이를 보호하려는 경향 ↔ 제 동아리에 견주어 제 누이와 동생을 흑평하는 경향
안달복달 ↔ 태연
- ㄴ. 고려시대 ↔ 조선조
화장이 크게 성했다. ↔ 화장은 사라졌다.
- ㄷ. 잔디는 ↔ 클로버는
새싹을 틔우지 않고 있다. ↔ 이미 초록빛 잎이 돋아났다.
- ㄹ. 자혼의 눈두덩에는 ↔ 그녀의 눈동자는
병색이 깃들어 있었다. ↔ 빛나고 있었다.

또한 (7)의 例文들은 先行文과 後行文의 위치가 바뀌어도 그 意味에는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8)의 例文은 先行文과 後行文을 倒置시키면 文章이 어색해진다. 위의 예문에서 '그러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意味로 대체할 수 있는데, 이는 모두 '讓步'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그러나'는 '對照'와 '讓步'의 뜻을 지니는데, 실제 使用 頻度數를 보면 '讓步'의 뜻보다는 '對照'의 의미로 많이 쓰인다. 즉, '그러나'는 '單純對比'를 基本意味로 지녔다고 볼 수 있다.

接續副詞 '그러나'가 '對照'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위에서 본 것처럼 文章內의 성분이 서로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대비되는데, 補助助詞⁸⁾ '는'이 쓰여 대조의 뜻을 강화시키기도 한다.

3.3 '그렇지만'의 意味

(9) ㄱ. 옥석을 가리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이번 만큼은 한번 옥석을 가려보자. (중앙 일보 3월 5일자)

나. '인간은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그건 분명 '막스 에른스트'의 그림 제목이었다. 하지만 그 카페 어디에도 막스 에른스트의 그림은 걸려 있지 않았다. (『이제 나무표지로 간다』)

다. 신한국당이 승리를 거둔 것은 서울에서이고 물론 이것은 큰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신한국당의 승리는 아니며 특히 YS의 승리라고 할 수는 없다. (중앙 일보 4월 29일자)

르. 지역을 내세워 잘되면 정말 대권을 넘보고 잘못되더라도 지역의 소영주(小領主)가 되겠다는 정치 계산도 있을 법하다. 그렇지만 이게 명색이 정치인, 특히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할 일인가? (중앙일보 3월 8일자)

(10) ㄱ. 아테네와 스파르타 여자들은 성공했다. 하지만 나는 실패했다. (『나비의 꿈, 1995』)

나. 그녀는 오른손을 내밀어 내게 악수를 청했다. 하지만 나는 악수를 하지 않았다. (『이제 나무표지로 간다』)

例文 (9)는 '讓步'의 의미로 해석되고, 例文 (10)은 '對照'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9)의 例文은 文章을 倒置시키면 의미가 통하지 않게 된다. 例文 (9)는 다음과 같이 바꿔 쓸 수 있다.

8) 特殊助詞, 補助助詞, 補助詞 등의 用語가 쓰인다.

(9) ㄱ. 옥석을 가리기가 어렵다. 그렇지라도 이번 만큼은 한번 옥석을 가려 보자.

ㄴ. '인간은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그건 분명 '막스 에른스트'의 그림 제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카페 어디에도 막스 에른스트의 그림은 걸려 있지 않았다.

ㄷ. 신한국당이 승리를 거둔 것은 서울에서이고 물론 이것은 큰 의미가 있다. 그렇지라도 이것이 신한국당의 승리는 아니며 특히 YS의 승리라고 할 수는 없다.

ㄹ. 지역을 내세워 잘되면 정말 대권을 넘보고 잘못되더라도 지역의 소영주(小領主)가 되겠다는 정치 계산도 있을 법하다. 그렇지라도 이게 명색이 정치인, 특히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할 일인가?

(10)은 다음과 같은 要素들이 서로 對比되어 있어 '對照'의 뜻을 나타낸다.

(10) ㄱ. 아테네와 스파르타 여자들은 ↔ 나는

ㄴ. 그녀는 ↔ 나는

악수를 청했다. ↔ 악수를 하지 않았다.

위에서 '그렇지만'의 의미로 '讓步'와 '對照'를 모두 들고 있지만, 실제로 用例를 찾아 보면 단순한 대비의 뜻을 가진 것보다는 '讓步'로 해석되는 것이 훨씬 많다. 다음의 例에서도 補助助詞 '는'이 쓰였다면 接續副詞 '하지만'보다는 '그러나'가 더 적합했을 것이다.

(11) 정열은 있다. 하지만 기본이 없다. (광고문)

위의 문장에 쓰인 接續副詞를 '그러나'로 바꾸면 話題의 초점이 先行文과 後行文 모두에 맞춰지는데 비해, '하지만'으로 쓰면 '기본이 없다'는 사실이 강조됨을 알 수 있다.

3.4 '그런데'의 意味

(12) ㄱ. "오페는 여기서 낚시하면서 살고 싶어해요. 그런데요, 나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해요."('깊은 숨을 쉴 때마다.')

ㄴ. 140억의 두뇌 세포는 생후 24개월까지 98%가 급속하게 발육하는

특이성이 있어서 영양기에는 다량의 DHA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어머니 젖에는 10mg 내외의 DHA가 함유되어 있으나 순우유에는 DHA가 들어있지 않습니다.(광교문)

ㄷ. 전대주: 실질적으로 기업은 외국은행에서 돈을 빌릴려고 하면 투명하지 않고 투명의 정도가 낮았을 때에는 이자율을 굉장히 비싸게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투명 정도에 따라 이자율이 굉장히 싸집니다. (『심야토론』)

ㄹ. 자동차 제조회사들은 우리 소비자들에게 큰 빛을 지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좋은 제품의 생산으로 그에 보답하려 하기는 커녕 과점적 지위에 안주하면서 마음 놓고 성능을 과장하기까지 하고 있으니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중앙일보 4월 30일자)

이상의 例文(11)의 (ㄱ, ㄴ, ㄷ)은 ‘그런데’가 ‘對照’의 의미로 쓰인 것이고, (11.ㄹ)은 ‘讓步’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⁹⁾ ‘그런데’는 주로 口語體에 많이 쓰이는 接續副詞로, ‘對照’와 ‘轉換’의 의미를 지닌다. 실제 口語體 資料를 분석해 본 결과, ‘對照’의 의미보다는 ‘轉換’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 또 의미 없이 間套語처럼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¹⁰⁾

ㄴ. “고등어를 바다에서 잡아 온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거야. 언젠 하나도 안 이상하지? 그런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상했어.”
(『깊은 숨을 쉴 때마다』)

3.5 ‘그러나, 그렇지만, 그런데’의 意味比較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그러나’와 ‘그렇지만’의 意味特性이 동일하게 나타났다.¹¹⁾ ‘그러나’와 ‘그렇지만’은 ‘對照’와 ‘讓步’의 의미를 갖는 接續副詞로 구

9) ‘양보’로 쓰이는 경우는 대부분 特殊助詞 ‘도’를 동반하여 ‘그런데도’의 형태로 쓰인다.

10) ‘그런데’가 ‘전환’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와 간부어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論外로 한다.

11) 신현숙(1989:444)에서는 ‘그러나’와 ‘그렇지만’을 [거리]의 의미를 가지고 변별하였다. 즉 표지의 형식이 길면 길수록 [거리]가 느껴지고, 반면에 표지의 형식이 짧으면 짧을수록 [거리]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나’는 [-거리], ‘그렇지만’은 [+거리]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나’와 ‘그렇지만’이 대치되면 文章의 의미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 두 單語 사이의 의미 차이를 드러낸다.

예를 들어, 위에 제시된 예문 (10, ㄴ)의 경우, ‘그러나’로 대치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 (10) ㄴ’. 그녀는 오른손을 내밀어 내게 악수를 청했다. 그러나 나는 악수를 하지 않았다.

즉, ‘하지만’을 쓰면 ‘그녀가 악수를 청하면 거기에 응해야 한다.’는 기대에 어긋난 행위를 보임에 비해, ‘그러나’를 쓰면 相反된 행위에 대한 ‘對照’의 의미가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하지만’의 경우는 악수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뜻이지만, ‘그러나’의 경우는 처음부터 악수를 할 마음이 없었다는 뜻을 內包하고 있다.

한편, 연결어미 ‘-으나’와 ‘-지만’의 意味分析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논의한 바 있다.

노대규(1992:297)에서는 국어의 連結語尾를 입말에서 쓰이는 非格式的 語尾 ‘-니까, -지만, -고, -려고’와 글말에 쓰이는 格式的 語尾 ‘-므로, -으나, -며, -고자’로 나누었다. 즉, ‘-지만’은 비격식적 어미로, ‘-으나’는 격식적 어미로 파악한 것이다.

윤평현(1992:85)에서는 連結語尾 ‘-으나’와 ‘-지만’에 대하여, ‘-으나’는 단순한 대립만을 나타내지만 ‘-지만’은 對立과 함께 比較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조’라고 하면 比較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으나’나 ‘-지만’이나 모두 比較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比較’가 두 語尾가 변별하는 특성이라고 할 수는 없다. 윤평현(1992:85-6)에서는 또 ‘-지만’이 보다 더 겸양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하고 있다.

- (13) ㄱ. 차린 것은 없(으나, 어도, 지만) 많이 드십시오.
ㄴ. 대접할 것은 없(으나, 어도, 지만) 한번 들려 주십시오.

(13)의 예문에서 連結語尾를 接續副詞로 바꾸면 다음과 같은 文章이 된다.

- (13)’ ㄱ. 차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이 드십시오.

차린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많이 드십시오.

차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드십시오.

ㄴ. 대접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들려 주십시오.

대접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들려 주십시오.

대접할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들려 주십시오.

위의 例에서 連結語尾 ‘-으나, -어도, 지만’을 接續副詞 ‘그러나, 그래도, 그렇지만’으로 바꾸었을 때 그 의미는 ‘그렇더라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결국 ‘양보’의 뜻을 나타낸다. 따라서, ‘-지만’이나 ‘그렇지만’이 ‘-으나’나 ‘그러나’에 비해 더 공손의 뜻을 나타낸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더 공손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러나’는 對照의 뜻이 강한데 비해, ‘그렇지만’은 讓步의 뜻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例가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14)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느 것 하나 잘난 데가 없어서 형수님한테 늘
점만 되고 ... 하지만 너무 염려 마십시오. (『아우의 초상화』)

위의 例에 쓰인 ‘하지만’은 양보의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그렇더라도’와 대체할 수 있다. 이것은 또 ‘그러나’로 바꾸어 쓸 수 있으며, ‘하지만’이 쓰였다고 恭遜의 뜻을 나타낸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그러나’에는 斷定의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단정할 수 없는 형편이라 ‘하지만’을 써서 완곡하게 표현한 것 뿐이다.

‘그런데’의 경우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對照’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여 ‘그러나’, ‘그렇지만’과 함께 對立的 意味關係를 나타내는 接續副詞로 분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런데’는 文語體보다는 口語體에 많이 쓰이고 ‘對照’의 의미를 지닌다 하더라도 ‘그러나’와 ‘그렇지만’에 비해 그 뜻이 약한 것을 알 수 있다.¹²⁾ 이것은 ‘그런데’의 基本意味가 ‘對照’보다는 話題의 ‘轉換’에 있기 때문이다.

12) 서정수(1996:790)에서는 완전히 對立된 상황에서는 ‘그러나’의 사용이 적합하고, 온전히 대립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러나’는 너무 강한 편이라 ‘그런데’가 더 알맞다고 하였다.

4. 結 論

接續副詞 '그러나, 그렇지만, 그런데'의 形態的 特性과 意味機能에 대해 살펴본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그러나, 그렇지만, 그런데'는 '그러하다'의 活用形이 굳어져 派生된 단어로, '하'가 축약되어 敘述性을 잃고 語彙化한 것으로 본다.
2. '그러나, 그렇지만, 그런데'는 對立 關係를 나타내는 데 쓰인다. 그러나 그 개별 의미에 따라 '對照'와 '讓步'로 나누어 볼 수 있다.
3. '對照'는 '앞 文章과 뒤 文章의 意味內容이 反對되거나 矛盾되어 서로 對比되는 것'을 말하고, '讓步'는 '前述한 내용에 대해 일단은 認定해 주고 나서 反對의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對照'는 先行文과 後行文 모두에 話題의 焦點을 두는데 비해서, '양보'는 後行文에만 話題의 焦點을 둔다.
4. '그러나'와 '그렇지만'의 個別的 意味分析에서 '그러나'의 경우는 '對照'의 뜻이 강하고 '그렇지만'은 '讓步'의 뜻이 강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對照'의 뜻을 지니 對立關係를 나타내는데 쓰이기는 하나, 폭넓게 쓰이지 못하고 주로 口語體에 쓰인다.

◇ 參 考 論 著 ◇

- 강상호(1989), 조선어입말체연구, 사회과학출판사.
김승곤(1981), '한국어 연결형 어미의 의미분석 연구1', 한글 173·174, 한글학회.
김영희(1988), '동위접속문의 통사 특성', 한글 201·202, 한글학회.
김일웅(1982), '우리말 대용어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노대규(1992), '국어의 입말과 글말의 의미론적 특성 연구', 梅芝論叢 第9輯, 연세대학교 매지학술 연구소.
서정수(1996), 수정 증보판 국어문법, 한양대학교 출판부.
徐泰龍(1987), '國語活用語尾의 形態와 意味',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신현숙(1989), '담화대용표지의 의미 연구 : '그래서/그러니까/그러나/그렇지만'을 대상으로', 국어학 19, 국어학회.
柳穆相(1970), '접속어에 대한 고찰', 한글 146호, 한글학회.

- 柳穆相(1990), 韓國語文法 理論, 一潮閣.
- 柳穆相(1993), 韓國語文法の 理解, 一潮閣.
- 윤평현(1988), '대립 접속어미에 대한 연구', 한글 200, 한글학회.
- 윤평현(1992), 국어의 접속어미 연구, 한신문화사.
- 이기동(1977), '대조·양보의 접속어미', 語學研究 第13卷 第2號.
- 이기동(1979), '연결어미 '-는데'의 화용상의 기능', 인문과학 제 41집.
- 이주행(1991), '이른바 특수조사 {은/는}에 대한 고찰', 玄山 金鍾埴博士 華甲
紀念論文集, 集文堂
- 장정줄(1983), '접속사 「그리고」 연구', 어문학 교육 제6집.
- 허 웅(1992), 우리 옛말본 - 15세기 국어 형태론, 샘 문화사.
- Lakoff, R(1978), 'If's, and's, and but's about Conjunction', in
Fillmore and Langendaen, eds.
- 市川 孝(1978), 國語教育のための文章論概説, 教育出版